

익산실내체육관 시설개선 비용 5억원 확보

LED전광판 신설... 내년 전국장애인체전 종목별 경기 원활 운영 기대

2018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주 개최지인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해 익산실내체육관 시설개선 비용으로 송하진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2018년 전국체전의 펜싱 및 장애인체전의 탁구 등 종목별 경기가 개최되는 익산실내체육관의 LED전광판 신설을 위해 확보

됐다.

익산실내체육관은 1997년 준공된 노후 건축물로 내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도비 27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57억이 투자돼 기계설비 및 방수, 수장, 냉난방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등 시설보강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으

로 LED전광판이 신설되면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의 각 종목별 경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모 부시장은 "이번 송하진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은 내년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의 원활한 개최와 경기운영은 물론 전국체전 개최 후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개·폐회식장인 주경기장과 실내체육관 등 시설인프라 구축이 중요함에 따라 관련 시설공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99회 전국체전(2018. 10. 12. ~ 18.)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2018. 10. 25. ~ 29.)은 주 개최지인 익산종합운동장에서 개·폐회식을 갖고 익산시를 포함 14개시·군 70개 경기장에서 분산하여 경기를 치른다.

/익산=정양원 기자

원광대 식품영양학과 이영은 교수 산학협력기술사업 전라북도지사 표창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 식품영양학과 이영은(원광식품산업연구원장) 교수가 제24차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 전북지역 최종결과발표회에서 전라북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이영은 교수는 폐지갑대기를 이용한 저지방 떡갈비에 대한 성공적인 연구를 인정받았으며, 온돌협동조합과 함께 지방화활동을 하면서 떡갈비의 식감을 살리고 고지혈증 발생 위험을 개선할 수 있는 콜라겐 떡갈비를 개발하는 성과를 올려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이영은 교수 연구팀과 온돌협동조합은 지난해부터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 연구를 시작해 지방합량을 48.8% 줄여 동맥경화지수를 30.8% 감소시키고 천연 한산화 물질인 아로니아를 이용해 떡갈비 저장 기간을 40% 연장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식생활문화 논문 발표 및 지적재산권 출원과 함께 고지혈증 개선 콜라겐 떡갈비 상품화 결실을 이루기도 했다.

이영은 교수는 "농식품산업은 전북도 전략산업으로 도내에는 좋은 농산물로 건강한 제품을 만드는 기

업들이 많이 있으나 소규모 기업이다 보니 연구개발 역량이 취약해 인정을 받지 못해 고전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이러한 소규모 기업들의 애로기술과 인력난을 해결해주는 것이 지역대학의 몫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열린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 전북지역 최종결과 발표회는 도내 9개 대학과 전북지역 중소기업 98개사가 지난 1년간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공동 연구 개발한 우수 과제 최종결과 발표 및 전시회가 진행됐으며, 원광대와 공동 연구 개발에 참여한 우수과제로 선정된 (주)온컴퍼니가 전북중소벤처기업청장상을 받고, 도내 98개 기업 중 매출실적 1위를 달성한 (주)다파프로폴리스가 원광대 총장상을 수상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호원대학교 호원사회봉사단, '지역사회 사랑 나눔 봉사' 벌여

호원대학교 호원사회봉사단은 인근 지역 한파주의보가 내린 지난 5일 군산시 임피·서수면 군산지역 관내 취약계층을 방문해 '사랑의 연탄·쌀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사랑의 연탄·쌀 나눔 봉사는 호원대학교와 한국GM군산공장이 주최하고 한국GM한미음식재단과 전북사회공헌협의회가 함께 후원하여, 호원사회봉사단 소속 학생 및 교직원 100여명이 3팀으로 나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연탄 2,100장과 쌀350kg을 인근 임피면과 서수면에서 각각 나눔 대상을 선정하여 임피면 3가구, 서수면 4가구 총 7가구에 연탄과 쌀을 전달하였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구자혁 학생(호원대 총학생회장)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학교 인근지역인 임피면 및 서수면의 도움이 되기 위해 연탄 나눔 봉사에 참여하게 됐다"며 "이번 봉사를 통해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군산시 임피·서수면 군산지역 관내 취약계층을 방문해 '사랑의 연탄·쌀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강희성 총장은 "교직원과 학생들을 포함한 호원대 모든 구성원이 다함께 어울려 이웃에게 희망과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지속적인 지역사회봉사를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호원대학교 호원사회봉사단은 연탄 나눔 봉사를 통해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나 연탄을 전달하는 작은 마음을 나눔으로써 이웃의 큰 온정을 느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년 연탄 봉사를 진행해 왔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제일중학교, 흡연예방사업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

군산제일중학교(학교장 이명화)가 2017년 흡연예방사업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12월 1일 제주에서 열린 2017 흡연예방사업 성과 보고 대회에서 흡연예방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다.

흡연예방사업 담당교사의 지도로 청소년 금연 서포터즈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참여를 통한 포대상담과 금연서약서 작성하기, 교내 캠페인과 군산 지역 청소년 축제에 참가하여 청소년 흡연예방 캠페인을 하였다. 또한 전주 동물원을 방문하여 관람객을 대상으로 금연 권유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담배 판매업소 방문·청소년 담배 판매 금지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여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펼친 결과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군산=김판곤 기자

원광대병원 크리스마스트리 점등

제생의세(濟生濟世)의 원불교 정신을 기본이념으로 설립된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이 종교적 의미를 떠나 지난 4일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크리스마스트리를 로비에 설치해 점등식을 가졌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설치된 크리스마스트리는 감사의 메시지 보드판을 함께 설치해 평소 말로 다하지 못한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에 대한 격려, 생일 축하, 프로포즈, 합격 기원 등 감사와 축하 응원의 메시지 등을 부착 할 수 있도록 하게 해 환우들로 하여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행복기원 트리 장식은 점등을 기점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트리의 불빛을 밝힌 예정이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시의회, 결산 추경 통해 2017년 예산 1조 681억원 확정

"세금 낭비되는 일 없도록 해야" 강조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결산 추경을 통해 2017년 예산을 1조 681억4000만원으로 확정했다.

시의회는 6일 제20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17년도 최종예산 확정 및 5건의 부의안건(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1건)을 의결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인 1조 305억2500만원에 비해 378억2500만원 증액된 1조 683억5000만원이 계상됐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억1000만원이 삭감됐다.

방경미 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인 만큼, 소모성이 아닌 생산적인 예산 편성과 긴급하

고 필수적인 예산인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세밀한 예산심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알뜰한 시정살핌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제20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됐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가결)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청암산오 토캠광장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별밤아래 푸드트럭' 연장운영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지난 11월에 진행된 청년푸드트럭 '별밤아래'가 큰 인기를 모은 가운데 12월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별밤아래 푸드트럭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푸드트럭 별밤아래는 2017년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역영양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도시재생 주민공동협의체와 중앙상가 번영회는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으나 행사 기간이 너무 짧아 아쉽다는 다수의 의견을 수용해 자발적으로 익산역 동편 주차장 앞 문화축제가리

서 이달 한 달간 매주 목, 금(오후 6~9시) 8일 동안 기존 푸드트럭 협동조합과 협의하여 푸드트럭을 연장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시에 제출했다.

운영 주체는 원도심지역 주민협의체인 도시재생 주민공동협의체가 주변 상가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며 운영에 필요한 전기는 주변 상가에서 지원하며 기타 필요 비용도 주민들이 모아 지원한다.

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운영하는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통하여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할 계획



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푸드트럭 운영은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시민들의 희망과 열망이 담겨있다"며 "추후 추진 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원도심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응급 구호품 세트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